

이타적 공진화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지식공유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 영 애*
신 호 균**

본 연구는 성과공유제를 실행하고 있는 대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및 지식공유가 파트너간의 신뢰성, 관계 지속성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경영성과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된 반면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협력적 기업문화의 관계지속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파트너기업간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가 대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배제할 수 있도록 조정자, 감사자의 역할을 자처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지식공유를 통한 이익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새로운 인센티브제도의 도입과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확산이 가능하도록 파트너 기업간 지식공유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이타적 공진화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정부와 중소기업, 대기업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한 건강한 지식생태계구축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상생협력, 전략적 방향일치, 협력적 기업문화, 기업간 배려, 지식공유, 지식생태계, 이타적 공진화

1. 서론

한국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가 놀랄 만큼 급성장하였다. 1960년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서, 1970년대의 정부 주도하의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공업,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전자, 자동차 및 조선 등을 거쳐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이동통신, 바이오, 디지털 가전산업으로 발전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가 G20을 개최할 정도로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과는 달리 가장 큰 문제점

으로 소득, 기업 및 세대간의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나타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는 한국 기업생태계의 다양성과 성공적인 공진화의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다(조진경, 2010).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2006년 3월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대·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과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비해 상생협력의 정도는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지식공유기반의 핵심주도형 산업경제

논문접수일: 2012. 01. 13. 1차 수정본 접수일: 2012. 02. 16. 게재확정일: 2012. 02. 24.

*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강사(yakim@kumoh.ac.kr), 주저자

**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hkshin@kumoh.ac.kr), 교신저자

에 필수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윤병섭 등, 2010).

Das & Teng(1999)은 기업간의 협력 및 제휴의 실패 확률을 50%이상으로 보았으며, Deck & Strom(2002)과 Jassawalla & Sashittal(1998)은 파트너 기업간 공동프로세스를 관리,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소개하였으며, 산업연구원(2005)에서는 기업간 상생협력이 어려운 이유로 시장의 구조적인 측면, 파트너 협력형태, 기업간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관한 연구는 상생협력과정의 모형개발(김기찬, 1995; 한정화 등, 2006; 송창석 등, 2009)과 신제품개발을 위한 상생협력개발 사례(중소기업청, 2006; 배종태, 2007; KT, 2007; 기업은행, 2007; LG전자, 2007)및 상생협력의 가능성을 산업별로 규명한 연구들(주우진 등, 2007; 임영균, 2007; 김기찬 등, 2007; 홍갑표, 2007)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있는 기업간 상생협력과 지식공유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식기반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성과공유제를 실천하고 있는 S 대기업과 파트너관계를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과 지식공유가 파트너 기업형태별로 경영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업간 동반성장을 통한 이타적 공진화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선행연구

2.1 공진화의 개념

공진화(Coevolution)의 개념은 생물학적인 관점

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생태계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으며, 기술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공진화를 통한 학제적인 연구와 기업 차원의 복잡계 공진화를 거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적 차원의 공진화로 응용, 발전되어 왔다(Nelson & Winter, 1982). 또한, 공진화는 기업형태 같은 복잡적응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은 방향으로 진화할 때 이를 공진화로 정의하고 있다(윤영수, 채승병, 2005).

공진화는 시스템의 개별적 수준이 아니라 파트너 기업간의 협력적 관계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기업 생태계의 측면에서 파트너 기업간의 경험과 지식의 공유, 동반성장과 협력적 기업문화가 형성됨으로써 진정한 이타적 공진화(Altruistic Coevolution)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조진경, 2010). 공진화 과정은 모방과 전수 그리고 학습, 정제와 확산, 새로운 출현 등으로 나타나면서 협력적 혹은 이타적 공진화와 더불어 경쟁적 공진화, 착취적 혹은 포식자 먹이 공진화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중소기업의 관계는 상생협력을 위한 공진화로 본다면 상호협력에 의해 진화한다는 의미에서 이타적 공진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Fehr & Fischbacher(2003)에 의하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진화의 기원, 사회적 관계 및 사회 조직과 관련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은 이타심과 이기심을 주요 이슈로 들고 있다고 한다. 이기적인 것은 '나'를 '이롭게' 하려는 것이고 이타적인 것은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라고 본다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기업은 '나'를 '이롭게' 하는 이기적 관점에서 출발하지만 기업은 혼자 이루어 나갈 수 없기에 이기와 이타는 상호공존관계에 있다고 보며, 이기적 행동인 기업의 이익을 목표로 기업을 영위해 나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공존하는 의미에서 이타적 행동이 이기적 행동을 아우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타적 공진화에 대한 연구가 오랜 역사에 비해 상생협력의 공진화가 쉽게 확산되지 못한 이유를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패러다임을 지적하고, 이타적 공진화의 태동을 정치적으로는 시민의 소통을 통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으로는 개방형 혁신을 통해 독과점 기업이 만들어낸 진입장벽이 무력화되는 경제적 민주화, 사회적으로도 개방과 공유, 참여에 기반을 둔 소셜네트워크 시대의 도래로 인류는 착취적 공진화에서 경쟁적 공진화를 거쳐 이타적 공진화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준호 등, 2011; Kallis & Norgaard, 2010).

이에 본 연구는 대·중소 파트너 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이타적 공진화의 개념으로 보고 이타적 공진화 요인이 공진화의 필수요소인 지식공유를 통한 파트너의 신뢰성과 관계의 지속성을 통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상생협력에 관한 선행연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연구는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혁신이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성과와 관련된 연구로 확장되어 왔다(Kaufman et al., 2000; Ring and Van de Ven, 1994). 대기업의 공급사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생협력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신뢰, 혁신 등을 강조하거나, 중소기업의 분류유형에 따른 상생협력의 내용이 달라야함을 주장하기도 한다(김기찬, 2006b; 2007).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모델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를 위한 상생협력의 핵심과제는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거나, 기업간의 상생협력 이라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라는 비전을 달성함으로써 기업을 넘어 국가경쟁

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한정화 등, 2006; 김기찬 등, 2006a).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기술역량이 협력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파트너 기업간 신뢰형성은 상생협력의 기반이 되며, 파트너간 협력과정에서는 협력 파트너 간의 전략 및 자원의 적합성, 명확한 역할분담 및 활발한 의사소통, 신제품 개발로 인한 사업성과의 공유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배종태·김중현, 2007).

송창석·박지윤(2009)은 PSBP 패러다임(Philisophy, Structure, Behavior, Performance)을 이용한 상생협력 진단 모델을 통해 기업은 물론 정부간 파트너 형성에 있어서 계약방식의 도입, 열린 혁신, 플랫폼 구축 등 민간주도의 상생협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기업간 이타적 공진화를 위한 상생협력에 있어 신뢰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어서 상생협력을 연구하는데 실제 파트너 기업간에 상생협력의 인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연구를 확장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3 지식공유에 관한 선행연구

지식공유란 정보시스템 관리자와 일선 관리자가 서로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이해하고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거나(Nelson, 1996),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으로서 조직 상호간의 이해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지식공유의 정도가 조직이나 개인들 간의 관계형성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효과적인 업무관계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Hansen, 1999).

Ganesan(1994)과 Emden et al.(2006)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파트너 기업간 시장과 기술적 이해의 정도인 지식의 공유와 전략적 방향일치,

관계의 지속성을 주장하였다. 신원무(1998)는 지식공유를 경영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전파 활동으로 지식, 전수자, 수혜자 관련특성과 혁신프로젝트 실행 상황특성을 소개하였다.

Stewart & Segars(2002)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경영으로 전략적 차원에서는 핵심지식에 대한 인지도와 가치공유, 프로세스차원에서는 의사소통채널과 관계의 다양성을 통한 지식접근도, 문화적 차원에서는 창의성과 협력도, 신뢰성, 개방성, 컴퓨터 활용능력, 기술적 차원에서는 정보기술 인프라와 정보기술 이용도, 지식축적 도구, 지식공유 도구 등을 제시하였다.

Krogh(1998)는 지식공유를 위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집단간 관심, 신뢰, 개방성, 네트워크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Beckman(1997)은 건강한 지식공유를 위해 경영진의 리더십과 몰입, 건강한 문화, 전문성, 정보기술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간 혹은 조직내 지식공유를 방해하는 장애요소로 하드웨어 의존적 사고에 의한 장애, 대화부족에 따른 문제, 보안상의 문제를 들었다.

Nelson & Coopridge(1996)는 조직구성원간에 대면접촉을 통한 휴먼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개인적 지식의 전이와 공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에 의한 의사소통도 풍부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Szuranski(1999)는 파트너 기업간 지식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지식 수용능력의 부족, 지식기여자와 습득자간의 불편한 인간관계 그리고 인과적 모호성에 있음을 밝혀냈고, Gupta & Govindarajan(1984)은 지식전수자 스스로가 지식공유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전술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파트너 기업간 지식공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무너뜨리며,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방향일치나 협력

적 기업문화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식공유가 파트너 기업간 신뢰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업무환경을 변화시키고 기업간 상생협력을 조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트너 기업간 상생협력요인과 지식공유가 파트너의 신뢰성, 관계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및 경영성과의 영향을 통해 기업간 이타적 공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및 건강한 지식생태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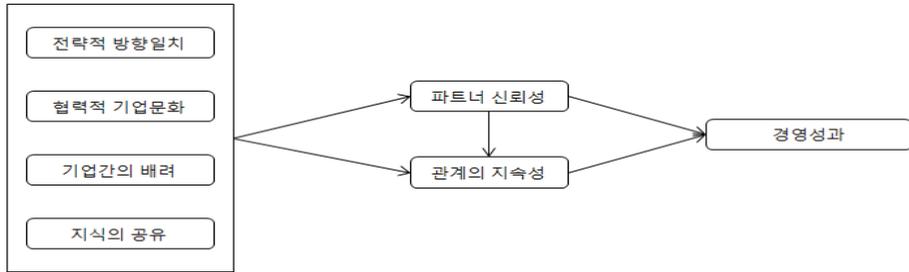
III.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기업의 이타적 공진화를 위한 상생협력은 주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을 수요기업으로 보고 대기업의 완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부가가치 향상 능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공급기업으로 본다면 상생협력의 과정에 생성될 수 있는 지식의 공유를 통해 거래를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기업간 신뢰성이 형성되며, 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영성과가 개선됨으로 공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과 지식공유에 대한 4가지 요소를 이타적 공진화의 요인으로 하여 파트너 신뢰성과 관계의 지속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3.1.1 전략적 방향일치

대·중소 파트너 기업간 이타적 공진화를 위한



〈그림 1〉 연구모형

전략적 방향의 일치정도는 파트너기업 모두에게 전략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타적 공진화가 경쟁적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어야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Mohr & Spekman(1994), Hedlund(1994) 등의 전략적 방향의 일치가 높을 경우 파트너 기업간 상호공유 할 수 있는 지식이나 공통의 관심사가 많아지고, 기업사이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에 있어 불확실성과 불신 및 불안정성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H1: 파트너 기업간 전략적 방향일치는 파트너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 파트너 기업간 전략적 방향일치는 관계의 지속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협력적 기업문화

Nonaka & Takeuchi(1995) 등은 협력하는 기업문화의 형성은 기업간 지식이 전달되고 새로운 지식이 생성되는 핵심 수단으로 보았으며, 이로 인해 조직구성원사이의 경험과 지식이 공유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며, 새롭게 생성된 지식으로 파트너 기업간의 이타적 공진화는 물

론 동반성장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H3: 파트너 기업간 협력적 기업문화 형성은 파트너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4: 파트너 기업간 협력적 기업문화 형성은 관계의 지속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기업간의 배려

Adcock(2000)은 배려를 기업간 거래관계의 측면에서 기업의 자율을 제약하는 의무의 자발적 수용으로 보았고, Dwyer et al.(1987)와 Moorman et al.(1992)은 관계지속성에 대한 명시적 약속으로 보고 가치 있는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았으며, Morgan & Hunt(1994)는 헌신을 파트너기업 사이에서 관계 자체를 중요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지로 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타적 공진화를 위한 파트너 기업들이 서로 얼마나 노력하고 기여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라진다고 본다면 파트너 기업간 배려가 높을수록 신뢰나 관계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5: 파트너 기업간 배려는 파트너 신뢰성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6: 파트너 기업간 배려는 관계의 지속성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지식의 공유

Beckman(1997), Krogh(1998) 등은 파트너 기업간 신뢰를 통해 상호 호혜적 기업문화가 형성되며, 이러한 신뢰는 지식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신뢰에서 지속적인 경영성과의 개선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의 지속성으로 변화할 때 이타적 공진화인 상생협력이 가능함을 보고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7: 파트너 기업간 지식의 공유는 파트너 신뢰성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8: 파트너 기업간 지식의 공유는 관계의 지속성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5 파트너 신뢰성

Ring & Van de Ven(1992)은 파트너 기업간 신뢰성의 의존수준에 따른 거래행태의 변화연구를 통해 상호간에 이익을 제공해주는 상생협력은 쉽게 형성되어 질 수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Das & Teng(1998)은 전략적 제휴의 형태구분에 따라 신뢰구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를 통해 파트너기업의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Dyer & Singh(1998)는 상생협력의 기반이 상호신뢰이며, 신뢰는 기업간 협력에 있어 관계의 지속적인 형성을 통해 학습과 지식의 이전을 통한 자원의 공유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통해 진정한 상생협력은 자원, 지식, 정보 등이 파트너 기업간에서 교류되어야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9 : 파트너 기업간 신뢰는 관계의 지속성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10: 파트너 기업간 신뢰는 경영성과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6 관계의 지속성

노형봉 등(2001)은 관계의 지속성은 상생협력을 통해 시작되며, 상생협력은 관계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이러한 관계지속성은 파트너 기업간의 관계 만족을 전제로 창출되는 이익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Ganesan(1994)과 Emden et al.(2006)은 상생협력을 위해 공통적 지식범위 내에서 파트너 기업간 시장과 기술적 이해의 정도인 지식의 공유와 전략적 방향일치, 관계의 지속성을 들고 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재정적, 법적 관계의 공유를 들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를 통한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 파트너 기업간 관계의 지속성은 경영성과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그림 1>의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가설 검정을 위해 이타적 공진화요인으로 상생협력에 사용되는 변인인 전략적 방향일치, 협력적 기업문화, 기업간의 배려, 지식공유를 독립변수로, 파트너신뢰성과 관계의 지속성을 매개변수로, 파트너 기업간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상생협력에 관한 모형은 윤병섭 등(2010)의 모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출처

범위	변인	조작적 정의	출처	문항수
독립 변수	전략적 방향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간에 미치는 전략적 효과 신규 사업과정의 참여도 신규 경영전략에 대한합의 파트너간 노력의 인식 정도 	Nayyar(1993) Mohr & Soekman(1994) Hedlund(1994)	4문항
	협력적 기업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하는 일의 실패책임 인식 파트너와 협력수준 정도 협력적 분위기 조성 정도 협력에 대한 만족도 	Krogh(1998) Roos et al.(1997), Goodman & Darr(1998) Nonaka & Takeuchi(1995) Teece et al.(1997), Metcalf(2003)	4문항
	기업간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십을 위한 기업간 후원 정도 협력적 관계를 위한 인적자원 후원 정도 기업간 미래경영이나 발전에 대한 관심 정도 기업간 문제해결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사 	Saker, Cavusigi(1997) John et al.(1997) Mohr & Spekman(1994)	4문항
	지식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공유는 기업의 경쟁우위 달성 도움 지식공유는 조직원들의 능력향상 도움 지식공유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 지식공유는 지식습득 및 조직발전 영향 	Krogh(1998) Beckman(1997)	4문항
매개 변수	파트너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간 깊은 신뢰감의 형성 파트너 기업의 도움제공의지 파트너기업으로부터의 이익발생 인정정도 기업간 신뢰로 일체감 형성 정도 	Nelson & Cooperider(1996), Nonaka & Takeuchi(1995) Saker, Cavusigi(1997) John et al.(1997) Hedlund(1994), Ganesan(1994)	4문항
	관계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생을 위한 조화로운 파트너십 형성 파트너십 유지의 필요성 인식 상대 파트너를 바람직한 파트너로 인정 파트너 역할의 적절성 만족 	Telser(1980) Williamson(1983) Nonaka & Takeuchi(1995)	4문항
종속 변수	경영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액의 증가 추세, 수익률의 증가 추세 시장점유율의 증가 추세 업무성과의 향상정도 	Newell & Swan(2002) Mccarthy & Puffer(2008)	4문항
합계	인구통계학적 분류문항(10문항) 포함			38문항

형과 지식공유 인식 모형은 강민구 등(2011)의 모형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의 구성과 요인별 조작적 정의 및 출처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최종 설문지의 구성은 독립변수, 매개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38개 문항으로 설계되었으며, 설문지는 파트너 기업간 이타적 공진화요인과 경영성과에 관련된 자기보고식 질문을 리커트형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설계되었다.

IV.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4.1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현재 글로벌 대기업으로 G지역에 소재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천하고 있는 S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A, B, C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1차 S기업의 협력사 관리를 하고 있는 임직원을 인터뷰한 결과 지역에 연

고를 두고 있는 협력업체로 A, B, C사를 추천받아 S기업의 협력업체 관리를 하는 관리부서와 현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A, B, C기업을 대상으로 S사와 협력업무를 진행하는 관리부서와 현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체 수거된 설문지 중 S사에서 수거한 100부 중 95부와, A, B, C사에서 수거한 170부 중 156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설문지 응답자 수는 270명이었으며, 설문응답자중 불성실한 응답 19부를 제외한 251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17.0과 AMOS 17.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응답 결과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응답자 특성은 협력기간은 5년~9년이하가 가장 많은 123명(49%)이었으며, 연령은 제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듯 20~30대 비율이 87%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은 협력업체관리 분야인 사무관리 104명(41.43%)과 생산직 83명(33.07%)으로 높았으며, 근속년수는 5년이하가 125명(49.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의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협력형성기간에 따른 차이에서는 전략공유, 협력적 기업문화, 기업간 배려정도, 관계 지속성, 지식공유 등에 있어 5년 이하와 10년 이상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기업의 형태는 기업간 배려의 정도와 관계지속성 및 지식공유에 차이가 있었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점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생협력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요인들은 모두 0.8이상이므로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더라도 측정항목의 교차효과로 인해 잠재변수들 사이에 잘못된 인과관계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연구에 사용한 측정모형과 각 요인들이 단일요인모형에 의해 수용되는지 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X^2 값이 504.751, 자유도가 254로 X^2/DF 이 1.987이고, 확률수준이 0.001이하로 나타났으나, GFI가 0.861, RMR은 0.049이었다. Hair et al.(2006)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샘플의 수가 250개 이상이고 측정변수의 수가 30개 이상이면 SRMR 지수가 0.08이하이면 RMR 지수보다는 SRMR로 지수로 측정하는바 본 모형은 SRMR 지수는 0.0473이었고, RMSEA은 0.063이고, AGFI는 0.822, CFI는 .912, NFI는 .913 등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성개념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계산하기에 앞서 측정변수의 R^2 이 0.4보다 낮은 협력적 기업문화, 기업간 배려 및 지식공유 문항의 한 항목들을 삭제하여 검증한 결과 각 구성개념을 측정변수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개념 신뢰도가 권장수준인 0.7보다 크게 높고, 평균분산추출값이 권장수준인 0.5보다 높으므로 집중타당도는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3>, <표 4> 참조).

판별타당성은 한 잠재요인이 다른 잠재요인과 얼

〈표 2〉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및 ANOVA 분석결과

구분		빈도	비율	전략방향	기업문화	기업간배려	지식공유	파트너신뢰	관계지속성
		251(100%)		3.41	3.52	3.50	3.59	3.50	3.54
협력 형성 기간	1년미만	19	7.57%	3.36	3.27	3.39	3.63	3.52	3.46
	5년이하	56	22.31%	3.54	3.60	3.62	3.73	3.60	3.72
	9년이하	123	49.00%	3.24	3.44	3.39	3.39	3.40	3.36
	10년이상	53	21.12%	3.67	3.73	3.69	3.92	3.62	3.79
F값 및 유의확률				5.013**	3.316*	3.349*	8.792***	1.698	4.456**
성별	남자	192	76.49%	3.48	3.56	3.56	3.65	3.55	3.57
	여자	59	23.51%	3.15	3.40	3.33	3.42	3.32	3.45
F값 및 유의확률				9.087**	2.471	4.998*	4.849*	4.769*	.850
연령	20대	122	48.61%	3.30	3.48	3.46	3.57	3.44	3.51
	30대	96	38.25%	3.49	3.56	3.51	3.60	3.55	3.59
	40대	26	10.36%	3.69	3.56	3.69	3.67	3.53	3.54
	50대	5	1.99%	3.10	3.55	3.60	3.40	3.50	3.35
	60대	2	0.80%	3.25	3.87	3.50	4.12	4.12	3.50
F값 및 유의확률				2.121	.329	.619	.481	.695	.211
학력	고졸이하	77	30.68%	3.38	3.59	3.55	3.61	3.58	3.61
	전문대졸	106	42.23%	3.40	3.52	3.48	3.54	3.40	3.49
	대졸	61	24.30%	3.45	3.45	3.49	3.66	3.57	3.54
	대학원졸	7	2.79%	3.39	3.53	3.35	3.78	3.50	3.60
F값 및 유의확률				.101	.425	.285	.564	1.115	.279
직종	사무관리	104	41.43%	3.43	3.51	3.51	3.70	3.49	3.59
	영업직	34	13.55%	3.12	3.06	3.13	3.14	3.22	3.13
	생산직	83	33.07%	3.44	3.69	3.62	3.57	3.56	3.56
	연구직	22	8.76%	3.50	3.54	3.46	3.85	3.68	3.50
	기타	8	3.19%	3.71	3.81	3.87	3.71	3.62	4.56
F값 및 유의확률				1.731	5.576***	3.832**	5.162**	1.909	5.379***
직위	사원	162	64.54%	3.38	3.55	3.48	3.58	3.47	3.52
	대리급	54	21.51%	3.33	3.33	3.43	3.47	3.43	3.51
	부장급	32	12.75%	3.62	3.67	3.70	3.81	3.68	3.63
	임원급	3	1.20%	3.66	3.75	3.66	4.33	4.08	4.16
F값 및 유의확률				1.210	1.992	1.137	2.703*	1.576	.709
근속 연수	1년미만	36	14.34%	3.50	3.62	3.67	3.65	3.52	3.52
	5년이하	125	49.80%	3.24	3.39	3.33	3.43	3.41	3.40
	9년이하	48	19.12%	3.50	3.57	3.58	3.64	3.56	3.58
	10년이상	42	16.73%	3.71	3.79	3.79	3.99	3.66	3.95
F값 및 유의확률				5.028**	3.984*	6.384***	7.297***	1.455	4.798**
기업 형태	대기업	95	37.85%	3.46	3.61	3.68	3.74	3.59	3.78
	중소기업	156	62.15%	3.37	3.47	3.40	3.50	3.44	3.40
F값 및 유의확률				.756	2.265	10.152**	6.837**	2.442	12.604***

* p<.05, ** p<.01, *** p<.001

〈표 3〉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 분석결과

잠재 요인	측정 변수	R ²	표준	SE	t값	개념 신뢰도	AVE	Cronbach's α
전략적 방향일치	a1	.573	.757			.979	.922	.867
	a2	.606	.778	.074	11.637			
	a3	.522	.722	.072	10.836			
	a4	.450	.671	.076	10.051			
협력적 기업문화	b2	.605	.778			.971	.920	.869
	b3	.620	.787	.083	11.456			
	b4	.405	.637	.084	9.435			
기업간 배려	c1	.407	.638			.967	.908	.866
	c2	.534	.731	.065	8.796			
	c3	.459	.678	.102	9.270			
지식공유	d1	.485	.696			.972	.921	.864
	d2	.608	.780	.116	10.289			
	d3	.498	.706	.107	9.561			
파트너 신뢰성	ee1	.496	.704			.977	.914	.862
	ee2	.555	.745	.098	10.422			
	ee3	.474	.689	.101	9.723			
	ee4	.436	.660	.100	9.359			
관계 지속성	ff1	.575	.758			.980	.925	.860
	ff2	.530	.728	.122	9.881			
	ff3	.534	.731	.119	9.582			
	ff4	.424	.651	.119	9.612			
경영 성과	gg1	.584	.764			.977	.915	.879
	gg2	.653	.808	.089	12.073			
	gg3	.528	.727	.084	10.969			
	gg4	.457	.676	.082	10.184			

* 유의수준 0.001, 개념신뢰도(표준화추정합의 제곱/표준화추정치합의 제곱+측정오차의 합), AVE(평균분산추출, 표준화추정치 제곱의 합/표준화추정치제곱의 합+측정오차의 합)

〈표 4〉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전략적방향일치	.922						
협력적기업문화	.534	.920					
기업간 배려	.495	.553	.908				
지식공유	.558	.540	.509	.921			
파트너 신뢰	.542	.532	.550	.549	.914		
관계 지속성	.597	.551	.511	.555	.648	.925	
경영성과	.488	.459	.434	.416	.471	.508	.915

* 굵은 숫자는 평균분산 추출 값이며, 기타 숫자는 상관관계 제곱 값임

마나 다른가에 관한 것으로,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두 잠재요인 각각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두 잠재요인간의 상관관계 제곱을 상회하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이다.

〈표 4〉와 같이 연구에 사용하는 각 구성개념의 평균분산 추출 값보다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 제곱 값이 적어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구조모형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기반으로 측정요인간의 공분산을 추정하여 지수간의 구조관계를 설명하는 AMOS17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안광호 등, 2008).

〈표 5〉에 제시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 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이 2.919로 권장수준을 만족하고, 확률수준이 0.001이하로 나타났으나, GFI가 0.977, RMR은 0.028이었다. 또한 SRMR 지수는 0.0574이고, AGFI는 0.838, CFI

는 .977, NFI는 .972 등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이타적 공진화를 위한 상생협력요인과 지식공유는 파트너 신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 지속성의 영향에는 상생협력 요인중 협력적 기업문화가 관계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 신뢰성은 관계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며, 파트너 신뢰성과 관계지속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4.4 연구결과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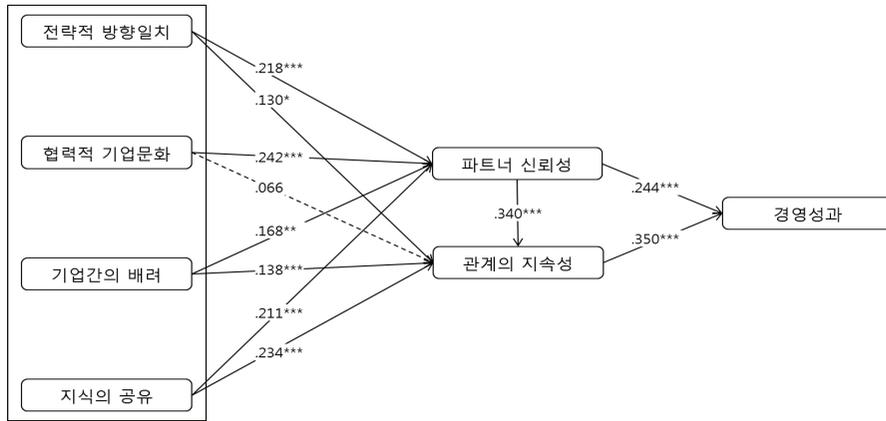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해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방향일치가 파트너 신뢰성과 기업간의 관계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소 파트너 기업간 전략적 방향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 추정	표준 추정	표준 오차	C.R.	P값	결과
전략적 방향일치 → 파트너 신뢰성	.209	.218	.059	3.547	.000	채택
전략적 방향일치 → 관계 지속성	.124	.130	.055	2.249	.025	채택
협력적 기업문화 → 파트너 신뢰성	.227	.242	.056	4.049	.000	채택
협력적 기업문화 → 관계 지속성	.061	.066	.053	1.158	.247	기각
기업간 배려 → 파트너 신뢰성	.172	.168	.063	2.714	.007	채택
기업간 배려 → 관계 지속성	.141	.138	.059	2.393	.017	채택
지식공유 → 파트너 신뢰성	.203	.211	.058	3.471	.000	채택
지식공유 → 관계 지속성	.224	.234	.055	4.101	.000	채택
파트너 신뢰 → 관계 지속성	.338	.340	.058	5.853	.000	채택
파트너 신뢰성 → 경영성과	.276	.244	.079	3.496	.000	채택
관계 지속성 → 경영성과	.398	.350	.079	5.009	.000	채택

파트너 신뢰성의 R²: 0.456, 관계 지속성의 R²: 0.542, 경영성과의 R²: 0.292,



〈그림 2〉 연구모형 경로분석 결과

일치 정도가 높을 경우 상호 기대효과와 신뢰성이 높아짐으로 파트너 기업간에 가질 수 있는 불확실성과 불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파트너간에 전략적 방향의 일치가 형성됨으로 지속적인 관계형성으로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지속적인 관계유지로 새로운 파트너를 탐색하는데 소모되는 탐색비용이나 새로운 신뢰구축비용이 감소하므로 파트너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협력적 기업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파트너 기업간 신뢰성 형성에는 채택되었으나, 관계를 지속시키는 영향에 대한 검정결과는 기각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기업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은 파트너 기업간 동일시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짐으로써 지식과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함으로 파트너 기업간에 신뢰성이 형성되면서 신뢰를 통한 지속적인 관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기업간 배려가 파트너의 신뢰성과 관계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성과 관계 지속성 및 지식공유에 있어서 가장 핵심요인으로 고려된 기업간 배려가 본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약자를 위한 배려와 강자를 위한 헌신이 함께 공생함으로 이타적 공진화를 목표로 하는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실제 파트너 기업간에서도 증명되었다.

넷째, 파트너 기업간 지식의 공유는 기업간 신뢰성과 관계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와 관계의 지속성은 지식공유를 통한 건전한 지식생태계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신뢰가 형성되고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됨으로 기업의 협력적 문화와 기업간 배려의 차원으로 지식의 공유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다섯째, 파트너 신뢰성이 관계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모든 관계에서 신뢰감이 형성됨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파트너 기업간에도 신뢰성이 형성됨으로 관계의 지속성을 연장시켜 기업간 매출비용을 줄이고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는 여건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트너 신뢰성과 관계지속성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파트너 신뢰성과 관계지속성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ANOVA 검정결과와도 상충되는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파트너 신뢰성에 대한 차이는 동일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지속성의 경우,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지속적인 관계 확장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관계의 축소를 의미하는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즉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협력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협력적 관계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관계유지로 관계의 지속성이 낮아 실제 지식공유도 집단별 차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수익의 효과를 높이는 집단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협력적 관계라기보다는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대기업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기업의 성장의 구심점인 경영성과를 높이려는 공생의 관계로 보고 있음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타적 공진화를 위한 상생협력이 협력형태기업별로 차이가 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4.5 정책적 제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외개방 및 FTA의 확대 등으로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파트너 기업간 윈윈 할 수 있는 이타적 공진화로서 동반성장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이타적 공진화의 시작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정부와 중소기업, 대기업의 역할 분담과 협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Fehr & Fischbacher(2003)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기적인 이윤창출과 사회를 향한 이타적인 이익환원의 상호작용으로 관계형성을 통한 지속적

인 공생으로 본다면 김세중(2011)은 기업은 시장 거래와 내부화의 장점을 살려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 할 수도 있는 리스크 감소를 위해 파트너 기업모두에게 공진화는 작용하며, 서로간에 리스크를 줄이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타적 공진화인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타적 공진화를 위해서 파트너 기업간 거래 유형은 초기 거래당사자간 교섭력의 불균형을 이용해 모기업의 일방적인 거래조건을 관철시키는 억압적 방법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간 직접계약의 명시 없이 신뢰에 기초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온건적 방법으로서의 변화를 거쳐 각 상황별 이해관계 및 공정한 규칙을 명문화함으로써 거래당사자간 거래관계를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트너 기업간 협력이 상호이익의 증대가능성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를 지니고 있다.

즉, 상호이익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계유지 및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어느 한쪽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조정자, 감사자의 역할을 하는 정부 차원의 기구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타적 공진화를 통한 상생협력을 실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상호발전 하는 관계에서 전략적 방향일치를 통한 협력적 기업문화 형성과 지식공유로 생성되는 이익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인센티브구조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성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확산이 가능하도록 파트너 기업간 지식공유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리라 본다.

인간 마음속에 내재되어있는 이기심을 기업의 성장의 구심점인 이익창출로 잡고 협력자, 조력자의 관계인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타인을

위한 배려인 이타심으로 어느 누구의 희생이 아닌 올바른 역할 분담을 통해 이타적 공진화가 올바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강한 자의 배려로 대기업이 공진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어져야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S사와 1차벤더 관계에 있는 3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생적 협력요인과 지식공유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Mohr & Spekman(1994)과 Hedlund(1994) 등의 연구결과와 같이 파트너 기업간 전략적 방향의 일치 높을수록 기업간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많아지며, 신뢰성이 회복되고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불신이 낮아짐으로 파트너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개선되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Nonaka & Takeuchi(1995)와 Beckman(1997), Krogh(1998) 등의 연구에서 파트너 기업간 새로이 전달된 지식이 협력적 기업문화를 형성할 것이라는 결과를 지지함으로 신뢰와 관계의 지속성이 개선됨으로 지식공유를 통한 동반성장이 파트너 기업간 이타적 공진화를 형성하는데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Dwyer et al.(1987)과 Moorman et al.(1992)의 연구에서 파트너 기업간 가치 있는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로 기업간 배려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진 것처럼 본 파트너 기업간의 실증적 연구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의 관계로 보아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정도가 파트너기업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인 파트너 신뢰성을 통한 관

계의 지속성 및 경영성과 영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확장하여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혹은 파트너 기업간 신뢰성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제로 대기업과 상생협력 관계에 있는 협력사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파트너 기업간의 상생협력 및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또한 파트너 기업간의 신뢰성 및 관계 지속성의 영향을 통해 파트너 기업간 지식공유를 통한 건전한 지식생태계 형성을 위한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대상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파트너 관계에 있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고는 하지만 S사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의 일부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표본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 우리나라에서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과 파트너 기업간의 확장연구를 통해 건전한 지식생태계 형성은 물론 SNA(Social Network Analysis)를 통한 관계망 확장의 정도를 측정함으로 관계망 확장의 정도에 따른 파트너 기업간 지식생태계 지수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 재무적 성과를 고려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지식생태계 구축을 통한 이타적 공진화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민구, 김준, 송영렬(2011),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과 조직성과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2권, 제1호, 49-75.
- 기업은행(2007), "상생협력의 리딩뱅크 IBK 기업은행," 2007년 통합학술대회 발표, 한국경영학회.
- 김기찬(1995), "시스템간 경쟁구조를 향한 대기업-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모형의 개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기찬, 김수욱, 박진수, 박성택, 박지윤, 송창석, 이종욱, 임일, 강호영, 한정화(2006a),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이론적 모형설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 구축," **중소기업연구**, 제28권, 제3호, 381-410.
- 김기찬, 김희숙(2007), "사회적 자본 축적에 따른 중소기업의 역량 진화모형 개발과 비즈니스 아키텍처의 진화경로 추적: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OD (Organizational/Dynamic capability)모델 적용을 중심으로," 2007년 통합학술대회 발표, 한국경영학회.
- 김기찬, 송창석, 박지윤(2006b),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형의 세분화와 전략-중소기업의 L, A, J유형 분류와 성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29권, 제4호, 133-151.
- 김세중(2011),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 **응용경제**, 제13권, 제2호, 71-97.
- 김준호, 홍진환(2011), "코에볼루션 이타적공진화-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트렌드와 미래전략," 한스컨텐츠.
- 노형봉, 서운주, 정주훈(2001), "국내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핵심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상호 호혜적 조정 전략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30권, 제1호, 75-108.
- 배종태, 김중현(2007), "대·중소기업 신제품개발 협력과정과 상생정책," **중소기업연구**, 제29권, 제4호, 295-318.
- 산업연구원(2005), 대·중소기업상생협력 방안연구, 산업자원부.
- 송창석, 박지윤(2009), "PSBP Paradigm을 이용한 상생협력 진단모델 구축: 발전사와 협력기업간 상생협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31권, 제2호, 255-272.
- 신원무(1998), "지식경영: 경영혁신에 있어 효과적인 지식전파의 조건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광호, 임병훈(2008), "SPSS를 활용한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 윤병섭, 김기학, 장지인(2010),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성과공유제 성공요인 분석,"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32, No. 2, 83-113.
- 윤영수, 채승병(2005),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 임영균(2007),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 간의 상생협력: 갈등이슈와 규제방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유통연구**, 제12권, 제5호, 125-151.
- 조진경(2010), "복잡계 관점에서 본 대중소기업의 공진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주우진, 김현식(2007), "대형할인점과 공급업체의 협력-상생 가능성에 대한 인과론적 고찰," **유통연구**, 제12권, 제5호, 49-63.
- 중소기업청(20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결과 및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실태조사결과, 국정보고자료.
- 한정화, 이종욱, 김기찬(2006), "한국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모델: 대·중소기업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 한국중소기업학회 연구보고서.
- 홍갑표(2007), "대·중소 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건설경제**, 2007년 겨울호(통권 54권), 46-55.
- KT(2007), "KT의 마음관리형 상생경영," 2007년 통합학술대회 발표, 한국경영학회.
- LG전자(2007), "인력지원형 상생협력," 2007년 통합학술대회 발표, 한국경영학회.
- Adcock, D.(2000), *Marketing Strategies for Competitive Advantage*, NY: John Wiley and Sons, Ltd.
- Beckman, T.(1997), "A Methodology of Knowledge Managem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s*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 And Soft Computing, Banff, Canada.
- Das, T. K., & B. S. Teng(1998), "Between Trust and Control: Developing Confidence in Partner Cooperation in Allian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3, No. 3, 491-512.
- Das, T. K., & B. S. Teng(1999), "Managing Risks in Strategic Alliances,"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 13, No. 4, 50-62.
- Deck, Mark & Mark Strom(2002), "Model of Co-development Emerges," *Research Technology Management*, Vol. 45, NO. 3, 47-54.
- Dwyer, F. R., P. H. Schurr & Sejo, Oh(1987), "Developing Buyer-Seller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Vol. 51(April), 11-27.
- Dyer, J. H., & H. Singh(1998), "The Relational View: Cooperative Strategy and Sources of Interorganizational Competitive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3, No. 4, 660-679.
- Emden, Zeynep, Roger J. Calantone & Comelia Droge(2006), "Collaborating for New Product Development: Selectng the Partner with Maximum Potential to Create Value,"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Vol. 23, 330-341.
- Fehr, Ernst & Urs Fischbacher(2003), "The Nature of Human Altruism," *Nature* Vol. 425, 785-791.
- Ganesan, S.(1994), "Determinants of Long-Term orientation in Buyer-Seller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Vol. 58, No. 2, 1-19.
- Kallis, Giorgos & Richard B. Norgaard(2010), "Coevolutionary ecological economics," *Ecological Economics*, Vol. 69, 690-699.
- Goodman, P. S. & E. D. Darr(1998), "Computer-aided systems and communities: Mechanisms for organizational learning in distributed environments," *MIS Quarterly*, Vol. 22, 417-440.
- Gupta, A. & V. Govindrajan(1984), "Business unit Strategy, Managerial charcteristics, and Business unit Effectiveness at Strategy Implement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27, No. 1, 25-41.
- Hansen, M.(1999), "The Search-transfer Problem: The Role of Weak Ties in Sharing Knowledge Across Organization Subunit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44, 82-111.
- Hedlund, G. H.(1994), "A Model of Knowledge Management and the N-form Corpor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5.
- Jassawalla, J. L. & H. C. Sashittal(1998), "An Examination of Collaboration in High-Technology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es,"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Vol. 15, No. 3, 237-255.
- John, R., G. Ietto-Gillies, H. Cox & N. Grimwade (1997). "Global Business Strategy," International Thomson Press, London.
- Kaufman, Allen, Craig H. Wood & Gregory Theyel (2000), "Collaboration and Technology Linkages: A Strategic Typolo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21, 649-663.
- Krogh, G. V.(1998), "Care in Knowledge Crea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40, No. 3, 133-153.
- Mccarthy, D. & S. M. Puffer(2008), "Interpreting the Ethic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Decisions in Russia: Utilizing Integrative Social contracts Theory to Evaluate the Relevance of Agency Theory Norma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3, No. 1, 11-31.
- Metcalfe, D.(2003), Unions and Productivity, Financial Performance and Investment: Internaational Handvook of Trade Unions, Edited by

- Addison, J.: Schnabel, C. Edward Elgar, 118-171.
- Mohr, J. J. & R. Spekman(1994), "Characteristics of Partnership Success: Partnership Attributes, Communication Behavior And Conflict Resolution Techniqu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5, No. 2, 135-152.
- Moorman, C., G. Zaltman & R. Deshpande(1992), "Relationships between Providers and Users of Market Research: The Dynamics of Trust Within and between Organiza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29(August), 314-328.
- Morgan, R. M. & S. D. Hunt(1994), "The commitment-Trust Theory of Relationship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Vol. 58, No. 3, 20-38.
- Nelson, K. M. & J. G. Coopriider(1996), "The Contribution of Shared Knowledge to IS Group Performance," *MIS Quarterly*, Vol. 20, No. 4, 409-432.
- Nelson, R. & S. Winter(1982), "An Evolution Theory of Economic Change,"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Newell, S. & J. Swan(2002), "Trust and Inter-Organizational Networking," in S. clegg (Eds.), *Central Currents in Organization Studies*, Vol. 6, London: Sage, 145-179.
- Nonaka, I. & H. Takeuchi(1995), *The Knowledge-Creating Company*, Oxford University Press.
- Ring, P. S. & A. H. Van de Ven(1992), "Structur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3, No. 7, 483-498.
- Ring, P. S., & A. H. Van de Ven(1994), "Developmental Processes of cooperative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9, 90-118.
- Roos, G. & J. Roos(1997), "Measuring Your Company's Intellectual Performance," *Journal of Long Range Planning*, Vol 30, No. 3.
- Saker, Cavusigi(1997), "A Commitment-trust Mediated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llaborative venture performance," in Beamish, P. W. and Killing, J. P.(eds). *Cooperative strategies*, San Francisco, The new Lexington press.
- Stewart, K. A. & A. H. Segars(2002),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 Instrument,"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13, No. 1, 36-49.
- Szuranski, G.(1999), "Exploring Internal Stickiness: Impediments to the Transfer of Best Practice within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7, 27-44.
- Telser, Lester G.(1980), "A Theory of Self-Enforcing Agreements," *Journal of Business*, Vol. 53, No. 1, 27-44.
- Williamson, Oliver(1983), "Credible Commitments: Using Hostages to Support Exchang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3, No. 4. 519-54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Knowledge Sharing and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Conglomerates and SMEs for Altruistic Coevolution on Management Performance

Young Ae Kim* · Ho Kyun Shin**

Abstract

This paper explored how win-win cooperation and knowledge sharing in partnership of large conglomerates and SME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at implement performance sharing influence on credibility between partners, durability of relationships and management performance.

While win-win cooperation of SMEs has been accepted as a factor partially influencing management performance in previous researches, the results of the paper show that all factors except for the durability of relationships in collaborative corporate culture have significant and meaningful effects on management performance.

This study suggests that a government needs to find a new mechanism to exclude an opportunistic behavior of large conglomerates. Also, it tries to maximize their profit, find new incentive systems, and help reduce biased profit from knowledge sharing. Moreover, it is needed that a government builds an infrastructure for knowledge sharing and extending networks, which enables enterprises to share their performance continually.

Finally, this paper strongly recommends that altruistic coevolution should begin with the role sharing among governments, large conglomerates and SMEs and build a healthy knowledge ecosystem.

Key Words: Win-win Cooperation, Match the Strategic Direction, Collaborative Corporate Culture, Consideration between Companies, Knowledge Sharing, Knowledge Ecosystem, Altruistic Coevolution

* Lecture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